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이승기 위기의 광주FC 구할까

팀 최하위 추락… 강등권 탈출하고 해외진출 이룰지 관심

AC 밀란·QPR 등서 주목

이승기

광주 FC의 이승기가 물오른 실력으로 국·내외 구단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미드필더 이승기는 지난 시즌 8골2도움을 기록하며 신생팀 광주의 돌풍을 주도했다. 광주의 역대 시민구단 창단 첫해 최다승(9승) 기록을 조력한 이승기는 당당히 2011 K리그 신인왕에 등극했다.

프로데뷔와 함께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UAE와의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당시 조광래 감독의 선택을 받아 처음으로 A매치 무대를 밟았다.

투입과 함께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이승기는 이근호가 터트린 결승골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큰 무대에서도 재치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최강희 감독으로 대표팀 사령탑이 바뀌지만 이승기에 대한 신임은 여전하다.

화려한 2011시즌을 보냈던 이승기의 활약은 2012년에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 올 시즌에는 광주의 도움왕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전남과의 17라운드에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11도움을 장식했다. 팀 내 도움 1위이자 몰리나(16도움·서울), 에닝요(11도움·전북)를 제외한 K리그 토종 선수 1위의 기록이다.

앞선 인천과의 37라운드 경기에서도 코너킥 키커로 나서 이용의 프로데뷔 골을 도왔다.

올 시즌 3골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득점력을 줄었지만 공격본능도 여전하다. 앞선 36라운드 성남과의 홈경기에서는 그림 같은 골을 넣었다. 골 에어리어 지역에서 가슴으로 공을 잡은 이승기가 세 명의 수비수에 이어 골키퍼까지 제치고 환상적인 슛을 날렸다.

정확한 킥과 넓은 시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한방까지 이승기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국내에서 3개팀이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고, 국가대표 경력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 박지성의 퀸즈 파크 레인저즈 이적 과정에서 영입후보로 이승기가 거론되기도 했었고, 29일 이탈리아 축구전문 매체인 '칼치오 메르카토 닷컴'에서도 이승기의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사에서는 AC 밀란이 제2의 박지성과 카가와 신지를 찾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고 언급하며 이승기의 이름을 실었다. AC 밀란이 주목하는 아시아 선수로 기성용(스완지 시티), 김보경(카디프 시티), 다카하시 히데토(FC 도쿄), 이시게히데키(시미즈) 등과 함께 이름이 오른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승기의 마음은 편치 않다. 뒷심 싸움에서 밀린 광주가 두 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며 그룹 B 최하위로 추락했다. 두 경기에서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지만 팀의 승리까지는 책임지지 못했다.

국가대표 이승기가 강등 위기의 팀을 구하고 더 큰 무대를 노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50골 넣고 골든슈 받았어요"

유럽리그 최다골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29일(현지시각) 바르셀로나에서 골든슈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롱도르' 또 메시·호날두 대결

〈FIFA 올해의 선수〉

후보 23명 발표… 각국 대표팀 감독·주장·기자단 투표로 선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의 선수에 해당하는 FIFA 발롱도르(Ballon d'Or) 수상 후보 23명을 30일 발표했다.

프랑스어로 '골든볼'을 뜻하는 발롱도르는 2009년까지 프랑스의 축구 잡지 '프랑스 풋볼'이 선정하다가 2010년부터는 FIFA와 프랑스풋볼이 함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FIFA와 프랑스풋볼이 함께 수상자를 선정한 2010년, 2011년에는 모두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영광을 안았다.

올해 후보 명단에는 메시를 비롯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이케르 카시야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프랑스풋볼이 선정한 기자단 투표로 최종 수상자가 정해지며 수상자는 2013년 1월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FIFA 발롱도르 선수 후보 23명

네이마르(브라질), 디디에 드록바(코트디부아르), 라다멜 팔카오(콜롬비아), 로빈 판 페르시(네덜란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마누엘 노이어(독일), 마리오 발로텔리(이탈리아), 메수트 외칠(독일), 사비 알론소(스페인), 사비(스페인),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 세르히오 부스케츠(스페인), 세르히오 아구에로(아르헨티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안드레아 피를로(이탈리아), 야야 투레(코트디부아르), 웨인 루니(잉글랜드), 이케르 카시야스(스페인), 제라르드 피케(스페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스웨덴), 잔루이지 부폰(이탈리아), 카림 벤제마(프랑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연합뉴스

MLB 아메리칸리그 골든글러브 최종후보 올라

'추추 트레인'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올해 최고 수비수에게 시상하는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30일 발표한 '2012 롤링스 골드글러브 어워드' 아메리칸리그 우익수 부문에서 제프 프랑코어(캔자스시티 로열스), 조시 레딕(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과 함께 최종 후보로 꼽혔다.

올 시즌 추신수는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력이 생명인 어시스트(보살)를 7개나 달성했고 수비율에서 0.993를 기록하며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했다.

수비율은 실책이 적을수록 이 수치가 높아진다. 추신수는 골드글러브 단골 수상자였던 스즈키 이치로(뉴욕 양키스)가 명단에서 빠지면서 생애 첫 골드글러브 수상을 노리게 됐다. 이치로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진출 11년 만에 처음으로 골드글러브 수상에 실패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키스에서 좌익수와 우익수를 오간 탓에 아예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추신수의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아 골드글러브 수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수비율에서는 프랑코어(0.985), 레딕(0.982)에 크게 앞서 있지만 어시스트에서는 한참 뒤처진다.

골드글러브는 메이저리그 30개팀 감독과 코치가 자신의 소속팀을 제외하고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수비 실력을 뽐낸 선수에게 투표해 주는 상이다. 골드글러브 최종 수상자는 31일 오전 10시30분 발표된다. /연합뉴스

양승호 롯데 감독 사임

"KS 진출 실패 책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양승호(52) 감독이 한국시리즈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롯데는 "양 감독이 지난 24일 장병수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구단은 심사숙고 끝에 사퇴 의사를 수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양 감독은 2년 연속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도 내년까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게 됐다.

2001년부터 7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한 뒤 3년 연속 '가을 야구' 무대에 올랐음에도 2010년 말 그와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로이스터 감독이 단기전에서 약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양 감독은 2010년 10월 롯데의 14대 감독으로 취임할 당시 "향후 2시즌 이내에 팀을 한국시리즈에 반드시 진출시키겠다"면서 취임 일성으로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꼽았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SK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EPL 신예 20인' 선정

영국 스포츠웹진 "창의적인 선수… 내년 활약 기대"

기성용(23·스완지시티·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신예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스포츠 전문웹진 '블리처리포트'는 30일(한국시간) '2013년에 더 큰 활약을 할 프리미어리그 신예 20인'을 선정하면서 기성용을 포함시켰다.

블리처리포트는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에서 성공적으로 세 시즌을 보낸 뒤 미카엘 라우드루프 감독에 의해 발탁됐다"며 "포백 수비진 앞부터 스트라이커 바로 뒤까지 중앙 미드필드 어디든 커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기성용은 테크닉 면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대부분의 미드필더보다 우수하다"며 "넓은 시야에 슈팅 능력도 갖춰 페널티지역 밖에서도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거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도 잘 적응하며 셀틱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안착할 것"이라며 "계속 발전하면서 기량을 입증한다면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가 원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리처리포트는 기성용 외에 잭 윌셔(아스널), 루카스 피아존(첼시), 닉 포웰(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을 20인 안에 꼽았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 기사를 통해 28일 맨시티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인 '맨오브더매치'로 기성용을 뽑았다.

이 기사의 필자는 축구 전문사이트 ESPN 사커넷에서도 "기성용은 침착하게 볼을 관리하면서 미추에게 결정적 기회를 열어주는 등 날카로운 패스를 여럿 배달했다"며 "셀틱에서 그를 영입한 라우드루프 감독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정동진/낙산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기차여행

정동진은 세계적으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배경지로 인기를 끌면서 매년 끊이지 않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주요 코스로는 정동진 해수욕장/ 모래시계/ 고현정 소나무/ 정동진 시비 관광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천년고찰이자 국내최고의 기도발원처인 낙산사를 비롯해 '쉬고 또 쉬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 휴휴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주문진 어시장 등을 여행하게 된다.

여행비
성 인 83,000원
경 로 82,000원
소 인 73,000원

출발일
11월 30일 22시경 광주역 출발

여행코스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입장료, 석식(도시락), 여행자보험